

“인간 마음은 백지... 경험 반복으로 관념 생겨”

불교로 읽는 古典

존 로크의 <정부론>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오늘날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 평등, 권력 분립, 제한 정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도할 수 없는 인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는 존 로크의 정치철학에 크게 빚지고 있다.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는 물론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와 1778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그의 숨결을 느낀다.

<정부론(the 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저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자이며 계몽철학 및 영국 경험론철학의 원조이다. 그는 영국이 청교도 혁명(1640~1660)과 명예혁명(1688~1689) 등을 통해 절대왕정에서 근대 자유주의 국가로 변천해 가는 격동기를 살았다. 그는 당시 영국정치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샤프츠베리(Shaftesbury) 백작의 정치고문이었으며 네덜란드에서 5년 반이나 망명생활을 했다. <정부론>은 명예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책이며 혁명의 성공으로 로크는 망명지였던 네덜란드에서 혁명주도세력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인도독립운동에서 간디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며 초대 법무장관으로 인도헌법을 기초한 암베드카르 박사(Dr. Ambedkar)는 자신의 사회철학은 “자유, 평등, 박애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프랑크 혁명이 아니라 “나의 스승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근대 서양의 민주주의 철학을 기초한 로크의 사상은 붓다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그의 <정부론>에서 읽어본다.

왕권신수설 비판과 시민정부

<정부론>은 두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논문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의 <가부장제론(家父長制論)>을 철저히 논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종교의 영향이 강했던 당시 왕당파의 이론적 기초였기 때문이다. 필머는 인간이 신에 의해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군주의 지배권은 신이 최초로 아담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신은 아담에게 아내 이브와 자식들 그리고 만물에 대한 절대 지배권을 허락했고 이러한 지배권은 아담의 직계자손인 각 족장들에게 그리고 각각의 군주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로크의 필머 비판은 “노예는 가장 비열하고 비참한 인간 상태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인간이 신권을 부여받은 군주에 의해 노예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자유는 군주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는 성서

의 어느 구절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아담은 모든 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군주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신은 인간에게 자기 생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도록 이성(理性)의 분별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럼 왜 인간은 정치사회를 만들고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정부론>의 두 번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총 19장으로 이루어진 제2논문은 정치권력이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데 공동체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권력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로크는 사회계약론, 자연권, 제한정부론 및 국민의 저항권과 혁명권을 도출한다.

결국 최고 권력자는 ‘국민’

계몽시대 사상가들이 사회계약론을 다룬 것은 인지가 발전하자 백성들에게 정치권력의 지배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필머의 왕권신수설 신랄히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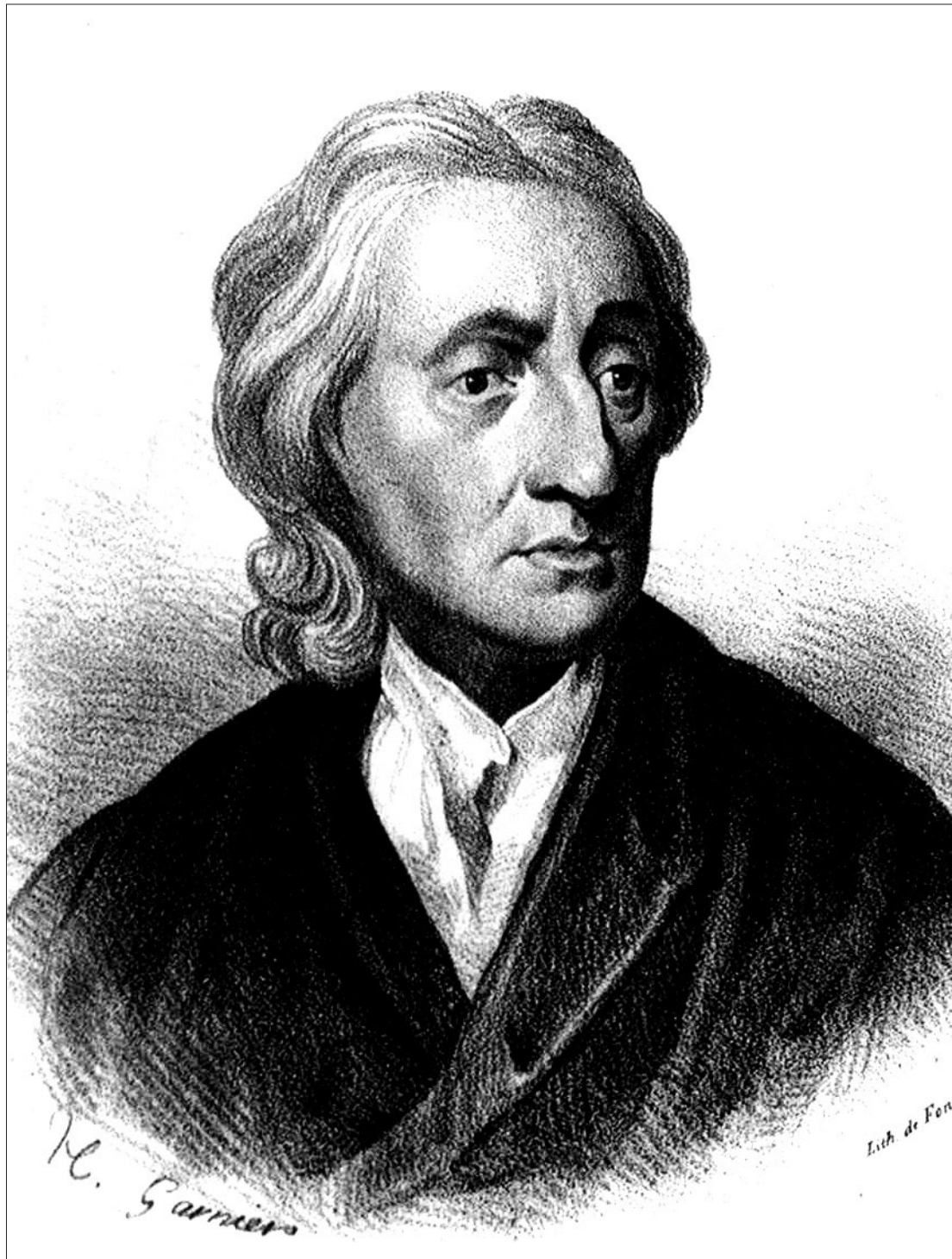
입법·행정 나눈 정치 시스템 고안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주장

자연론은 붓다의 사성 평등과 유사
선입견 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진리

국가에게 양도하여 강력한 국가(Leviathan 리버이던)를 수립했다고 했다. 절대주의 국가를 합리화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free and equal)”고 보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자유·재산(소유물)을 유지할 자유를 주며 자기보존과 같음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게 한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이며 전쟁상태란 타인을 절대 권력의 지배 아래 두고자 상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절대왕정의 전제정치야말로 바로 그런 전쟁상태라고 보았다.

그러면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왜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수립하는가? 자연 상태는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자연법에 따라 나타나는 분쟁을 해결해 줄 판사도 없고 자연법을 강제할 경찰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초상화.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선구자이며 계몽철학 및 영국 경험론철학의 원조이다. 그가 저술한 <정부론>은 명예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책이며 이를 통해 공화주의의 초석을 닦았다.

홉스와는 달리 로크의 사회계약에서 인민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 자연권은 양도하지 않으며 계약으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정부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시민정부다. 시민정부는 통치기관으로 입법권·행정권·연관권을 두는데 입법권은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있으며 행정권과 연관권(외교권)은 국왕에게 있다. 그러나 명예혁명으로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사실상 최고 권력은 의회에 있다.

로크는 정치사회에서 전제지배나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를 고안했다. 국민이 선출하는 입법부가 최고 권력을 갖게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이 국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나아가 로

크는 권력의 속성에 절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저항권과 혁명권을 부여했다.

로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인정했고 정부권력(행정권과 입법권 모두 포함)이 인간이 정치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파기하는 극단적 사태에 이르러면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권을 인정했다. 최고 권력을 갖는 입법부가 이를 위반하면 국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도 좋다고 하였다. 결국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되는 셈이다.

로크의 저작 중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한 <정부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전개한 <인간지성론>은 1890년에 의명으로 동시 출간되었다. 명예혁명 2년 후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다. 로크의 철학은 생활 속에서 탄생한 것

이며 그의 정치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는 데카르트를 좋아했고 이성의 빛으로 무지를 타파하는 데 일생동안 관심을 가졌다. 신과 신앙심, 그리고 도덕물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로크는 그에 앞서 인간의 인식문제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칸트의 인식론이 나타나기 10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는 데카르트와 신의 개념을 타고난(생득)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했다. 청교도들의 신의 개념이나 왕권신수설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개념은 타고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인간의 마음은 백지(tabula lasa, 깨끗한 석판)인데 경험의 반복을 통해 관념이 생긴다고 했다. 로크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이요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정부론>은 그의 이런 철학적 사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현대 공화주의 정신의 초석 닦아

로크의 왕권신수설 비판과 자연권 이론은 붓다의 브라만신의 사성(四姓)계급 창조신화를 부정하고 사성 평등을 설파한 가르침과 유사하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인데 그 위에 경험이 반복되어서 관념이 생겼다고 본 점도 인간의 본마음은 청정함에 경험의 반복으로 업을 쌓아 고통을 받는다는 붓다의 가르침과 통한다.

로크를 읽다 보면 기본 발상이 붓다의 가르침과 유사한데 놀라고 26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것인지 감탄하게 된다.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자유평등사상이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붓다의 가르침은 자유평등과 공화주의의 원리에서 근대 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불교에서 공동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승가 회의인 갈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갈마는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어떤 경우에도 여법(如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도 헌법정신에 합치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현대 공화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로크의 <정부론>의 내용은 공동체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계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에 불과하고 자유주의의 자유가 내용은 묻지 않고 외적 강제에 부재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자유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칸트의 말대로 사회계약이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으며 상상의 계약이지만 보편적 인간 이성에 의해 이끌어 낸 것으로 보면 된다. 불교에서 불설이나, 아나나의 최종 기준을 붓다의 법성(法性)에 합치 여부로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로크의 자유는 “땀대로의 자유” 또는 외적 강제의 부재만 추구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자연 상태를 규율하는 이성과 공동체가 정한 법률 속에 놓여 있는 자유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철학은 신의 개념 자체를 극복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고 생명, 자유, 재산의 보존을 중시하고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붓다가 가르친 궁극적 진리(眞諦, 진제)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세속적 진리(俗諦, 속제)에는 매우 근접하여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